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방만운영'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이 규정을 어기고 성과급 잔치를 하는가 하면 직원 가족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전용차가 배정된 원장에게 관내 출장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광주시 출연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직 정비와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11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업무 10건을 적발하고 시정과 개선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한 예산 3627만원은 회수 111만원은 추징토록 했으며, 직원 8명에 대해 견책·주의 처

##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개, 10건 적발 원장은 전용차 이용하면서 별도 여비까지 지급

분했다.

감사결과 진흥원은 광주시에 통보한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7년 2436만원, 2018년 2575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일수가 부족해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 5명에게 93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진흥원은 2018년에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 배우자 2명에게 각각 2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

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진흥원 내부 규정은 전용차량 배정자에게 관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도, 전용차량을 이용하는 원장에게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166만원의 관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진흥원 측은 "원장에게 배정된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정식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공색한 해명을 한 뒤 "지급된 관내 출장비를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보수규정에는 '임·직원

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원장에 대해서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직원들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 공가사용 부적정, 용역업체 선정 및 직원 호봉책정 문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 관리 부적정, 입주업체 관리 소홀 등도 적발됐다.

한편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와 조직, 재정 등 경영 전반 정비는 물론 기관·단체의 통제합과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혁신을 권고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 예산집행률 5년 중 최저 '예산운용 부적정'

광주시의 2018년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고,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18년 예산규모는 5조2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8년 내에 사용한 예산 금액은 4조5692억원으로 집행률이 87.7%에 불과했고, 이월액은 70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고, 이월액은 2017년보다 1834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인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2017년 1245억원에서 2018년 2012억원으로 767억원 증가했고,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비해 173억원, 계속비는 281억원 증가했다.

불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323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7억원이 늘었다.

이월사유별 중 올해 5월 말 현재 명시이월사업 집행률이 14.9%에 불과해 상당수 예산이 2020년으로 제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한 편성으로 막대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이다"며 "이월사업 집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봉우 기자



**처참한 모습의 유람선** 11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인양관계자가 함께 선체 인양을 하고 있다.

## '적조·고수' 전남도 수산재해 전방위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하절기 수산재해 예방을 위한 적조 및 고수온 대비 양식어장 예찰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어장관리 요령과 피해 예방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조 예방활동은 ▲적조생물 출현을 감시하는 해상 예찰 ▲피해 예방 교육 홍보 ▲적조생물 출현 시 방제활동 ▲피해 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및 복구 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예방활동은 가장 중요하면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분야로 피해 예방 조치, 특별발효(해제) 및 방제지역 설정 등 중요 사항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다.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전남 연

안 해역을 전담해 4월부터 정기예찰을 하고, 주요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수온 변화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다.

또 적조 예찰 강화를 위한 소속 공무원 직무교육을 지난 5월 실시하고 6월에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절기 어장 관리 및 적조 대처 요령 교육을 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남 해역 해황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적조 예찰은 해양수산기술원 9개 지원 59개 지점에서 정기예찰은 주 1~2회, 매일 예찰은 적조생물 출현 시 진행한다. 올해 적조는 7월 중순께 발생해 7월 하순~8월 초순 확산할 전망이다.

해양 기상은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1도 내외의 높은 수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5월 30일 기준 전남 해역 평균 수온은 18.8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도, 평년보다 0.4도 높은 수준이다.

오광남 원장은 "양식생물 피해 우려해역을 중심으로 양식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수온정보와 특보상황을 양식 어업인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는 현장 기술 지원을 강도높게 실시해 예방 중심적 대응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무차별 폭행' 친구 숨지게 한 10대 4명 자수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씨 등 10대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약 30분 동안 친구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40분 부모의 실책으로 전북 순창경찰서에 자수한 이들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B군은 온 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북 지역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두 달 전 광주 한 직업학교에서 B군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북구 모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근처에 사는 B군을 자주 불러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밤행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11시에 B군을 원룸으로 불러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뒤 목을 해보라고 강요했다.

육식을 강제한 뒤 번갈아 B군의 신체 일부를 20~30차례씩 주먹·발 또는 도구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무차별 폭행 직후 차에서 담배를 가져오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군을 또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쓰러진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깨어나지 않아 렌터카를 몰고 일행 중 일부의 고향인 순창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우산·목발 등 도구로 B군을 상습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 차량서 잠든 취객 금품 훔친 1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23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B(36)씨의 차량에서 회사 공금 8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가는가 하면 이날 2일 오전 11시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모 시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1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차탈이 대상을 몰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에도 만취해 자던 B씨를 발견하고 방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 요양원서 몇 시간 사이 환자 2명 추락사

경기 양주시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잇달아 환자가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양주시 광사동의 한 요양병원 6층 병실에서 열린 창문 사이로 A(66·여)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지난 4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두개골 및 갈비뼈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사고 몇 시간 뒤인 10일 0시30분에는 양주시 백석읍의 5층 규모 노인요양원에서 B(66)씨가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치매를 앓으면서 해당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술마시다 뺨 때린 선배 흥기 휘두른 40대

경기 안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툰 중 자신의 뺨을 때린 동네 선배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께 경기 안성시의 한 원룸에서 동네 선배인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